

# 안보 vs 경제... 여야 국감 대혈투 예고

### 10일부터 20일간...민중·평화·정의 “평화·민생 개혁 주도” 한국당·바른미래 “부동산 등 정부 경제정책 검증 화력 집중”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 만에 실시돼 직접 정부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의 공세는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태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장에서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베풀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 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지역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부각한다는 각오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이라고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차례 공방이 오간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한국당의 집중 검증 대상 목록에 올라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특별히 보여 주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감칠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남북평화 관련 부분에서는 (정부와 여당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민생문제나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민 문제와 호남 경제의 낙후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자료 ‘수북’ 2018 국정감사 시작을 사흘 앞둔 7일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 각 피감기관이 보낸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 여야 6개 특위 구성 막판 줄다리기

### 사개특위 등 인원수 배분 이견...시급성은 공감대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3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 수를 놓고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는 8일까지 특위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특위가 출범할 것인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4일) 저녁에 특위 구성과 관련해 합의해서 금요일(5일) 아침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금요일에 다시금 번복돼 다음 주 월요일(8일) 다시 보자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민주당 핑계,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로 서로 핑퐁을 치며 정개특위 출범을 늦추고 있어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지난 7월 11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특별위원회를 9명 대 9명 구성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 23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죽음으로 당시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했던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은 특위 위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3달 가까이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공전하자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를 ‘민주 8,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2’로 꾸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사개특위를 포함한 나머지 특위의 위원수에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

지 못하면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도 특위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구성에 있어 여야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며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마다 위원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있어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하루 속히 출범시키고 올해 내 선거제도 개혁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민주당, 민생·평화 고삐 죄기

### 오늘 대전·충북서 예산정책협·당정청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챙기기와 평양공동선언 뒷받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별 예산정책협의 회 재개, 민생 입법 챙기기에 고삐를 죄는 동시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관철, 민생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을 찾아 대전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충북도와 예산정책 협의를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초충남 호남과 충남·세종, 경기·인천, 부산·경남을 차례로 돌며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에 성과를 내는 것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 규제 완화법 통과에 주력해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공정경제 등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민주당의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뒷받침할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최우선과제로 설정,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민주당화당과 정의당 등과의 활발한 소통은 물론 바른미래당과의 접촉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원내대표 하마평만 10명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2월까지 두 달이나 남았지만, 일부 주자들은 몰방에서 계파·지역별로 당내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경선 열기가 술술 달아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가운데 치르는 이번 선거가 내내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내 헤게모니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020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당을 진두지휘할 뿐 아니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총선 공전에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경선 하마평이 나도는 인사만 해도 10여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나경원·신상진·김학용·안상수, 대구·경북(TK)에서 주호영·강석호·김광림·박명재, 부산·울산·경남(PK)에서 김정은·유기준·조경태 의원, 강원지역에서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충청권에서는 재선그룹이긴 하지만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입어 정용기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박지원 “文대통령 평양회담 흡연”

### 평화당 광주시당 초청 강연...“대북정책 지지자 돼야”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감칠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기 때문이다”면서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이 글을 읽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핵화는 현재의 핵 유예, 낮은 수준의 핵 동결, 높은 수준의 동결한 계에서 북미 간 신뢰가 쌓여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성공하도록 해 북미간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은 수준의 핵 동결, 높은 수준의 동결한 계에서 북미 간 신뢰가 쌓여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성공하도록 해 북미간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